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1년 Vol.16

D R &
A J 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자문 그룹을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산업통상자원부 –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2.1(수)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온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K-ESG 지표는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EF, GRI 등)의 3,000여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61개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공통사항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주요 경제단체, 연기금, 금융·투자기관, 평가기관, 신용평가사·언론사 등 5차례 간담회 및 대한상의 포럼, 경총 ESG 위원회 등 참석)의 의견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K-ESG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1~2년 주기로 발간하고 업종별·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도 22년부터 마련할 계획입니다.

< K-ESG 가이드라인 구성 >

구 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5)	•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등
환경(17)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사회(22)	•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17)	•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별첨1-1][보도자료]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

[별첨1-2] 'K-ESG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 제4차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2월8일(수)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제4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1년 '녹색금융 세부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탄소중립 논의에 발맞추어 ①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현황, ②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 등을 점검하고, ③ESG 공시·평가체계 구축, ④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ESG 경영과의 연계 논의 등 녹색금융 뿐 아니라 'ESG 분야'로 관련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 중 ESG공시, 평가체계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SG 공시체계

○ **(현황)** 거래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현황 점검** 결과 **'21년중 자율공시 기업**은 **70개사**로 전년 대비 **32개사 증가**

- 아울러, 지속가능경영보고서(18개사) 분석 결과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지표(21개) 활용률은 평균 81%(17개)*** 수준에 달함

  * 환경지표(E) 81%(7.3개), 사회지표(S) 75%(6.8개), 조직지표(G) 100%(3개)

○ **(계획)** 거래소는 **체계적인 자율공시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가이던스**의 **권고지표 개편****('22.下)에 착수할 예정

 * 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상방안 마련 등 자율공시 촉진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결과 및 시장참가자 의견수렴('22.上 실시) 결과 등 반영

[2] ESG 평가체계

○ **(현황) 국내 ESG 평가기관***은 국제기준 등(예: GRI, TCFD)을 참고하여 **평가주제·지표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E, S, G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론 채택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 예) A평가기관은 E, S, G별 3, 4, 4개의 대분류(주제), 13, 14, 11개의 중분류, 50, 52, 68개의 평가지표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평가

○ **(계획) 국내 ESG 평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분석***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점 검토** 예정(금융위)

 * 국내외 ESG 평가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 진행중('22.1분기 완료, 잠정)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녹색금융 활성화와 기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및 사회적금융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녹색금융과 기후리스크 관리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민간의 양방향 소통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업계와 공유하며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건의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온 사회적금융을 ESG 틀 안에서 논의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권 관계자들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에 대해 격려하면서 "금융권이 직면할 기후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녹색금융 지원 등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 전반에 녹색물결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소외된 영역을 보듬기 위한 포용경제의 달성을 위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ESG 경영과 연계하여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별첨2-1][보도자료] 제4차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전체회의 개최

[별첨2-2]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별첨2-3]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별첨2-4] ESG 경영·투자 확산에 연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30대 그룹이 올해 발표한 환경 분야 ESG 관련 투자계획이 2030년까지 총 153조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K기업 ESG 백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30대 그룹 소속 기업과 전경련이 운영하는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지속가능보고서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점차 넷 제로를 선언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목표 연도는 LG전자 2030년, SK(주) 2040년, SK실트론 2040년, SK네트웍스 2040년, SK텔레콤 2050년, 현대·기아차 2045년, 한화솔루션 2050년, 코웨이 2050년 등이었습니다. 네이버는 2040년까지 카본 네거티브(탄소중립을 넘어 마이너스 도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SG 분야 가운데 사회이슈도 적극 다뤄진 한 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적자원관리, △다양성제고, △안전보건, △헬스케어 접근성, △공급망 ESG확산, △인권경영, △지역사회·공동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공동체활동 사업에는 환경, 코로나, 공급망, 반려동물, 골목상권, 스타트업 등 최근 사회 트렌드와 관심분야가 반영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기업들이 국내외 이니셔티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으며, 이번 백서의 조사대상 기업 85개 사 중 64%에 해당하는 54개 사는 TCFD 보고 양식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30대 그룹, 2030년까지 환경 ESG에 '153조' 쓴다(조세일보 12월 6일자 보도)

2. 30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표준화를 위한 작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국내 ESG 공시를 둘러싼 논의가 지나치게 당위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열린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 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달 열린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한 바 있는데, ISSB는 내년 2분기 초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공시 기준 표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연구위원은 "ISSB의 가장 큰 설립 목표는 공시정보의 표준화를 이루고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기준선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주요 국제 이니셔티브가 참여한 만큼 국제적으로 대표성 있는 기준 마련이 가시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재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기보다 자율 규제의 영역에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이사장은 "ESG 이슈는 각 산업군과 영업 행태 등에 따라 다양한 만큼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로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SG 공시 의무화, 규제보다 유인강화 방향이 바람직" (머니투데이 12월 7일자 보도)

3.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기업인들을 만나 감사를 표하면서, 탄소중립 전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하였는데, 보고회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마련되었습니다. 본 보고회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 이상으로 상향한 데 반발해 온 산업계를 달래면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성격의 자리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부문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선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4년까지 노후석탄 발전소 24기를 폐지하고, 남은 석탄발전소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 감축을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암모니아·수소 등 발전(發電)기술의 신속한 상용화, 합리적 인허가 제도 혁신을 통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려는 차원에서 대규모 예타 사업을 추진,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도 추진합니다. 또 친환경 플랜트, CCUS, 에너지 신서비스 등 기술은 신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바이오 소재, 이차전지, 차세대 반도체 등 저탄소 소부장 산업 생태계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공정 전환, 석탄·내연차 등 전통산업의 신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신설하거나 신안 해상풍력 등 친환경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등으로 지역 경제 활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입니다.

文, 탄소중립 비전 논의…'탄소 약자' 중소기업 지원 의지(뉴시스 12월 10일자 보도)

4. 올 한해 글로벌 투자 키워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자동화 기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가능케 하는 경영철학과 기술로 돈이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13일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크런치베이스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 등에 따르면 글로벌 벤처 펀딩 규모는 이미 상반기 3000억달러(약 354조원)에 육박하며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100억달러(약 129조원)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올 한해 펀딩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체육과 애그테크((Agtech, 농업+기술) 등 ESG에 대한 투자가 대거 이뤄졌습니다.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애그테크 기업에 쏠린 투자금은 78억달러(약 9조2118억원)입니다. 애그테크란 첨단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하는 기술로, 인간보다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식량 부족 현상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특히 친환경 농법 활성화와 농업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 이상기후에 따른 식량부족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떠오른 분야이기도 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분야는 '질소비료 대체제'와 '인공수분(artificial pollination)'으로 꼽힙니다.

[마켓인]올해 전세계 돈은 여기로 몰렸다…'ESG·자동화기술' (이데일리 12월 14일자 보도)

5. CNN은 13일(현지 시각) 미국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 잦은 폭우와 초대형 허리케인 등으로 내년에만 135억 달러(약 16조원)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미 연안이 침수되면서 매년 수백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비영리 연구·기술재단인 퍼스트스트릿재단과 상업엔지니어링업체 애럽그룹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침수 피해 규모가 내년에는 135억 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피해만 추산한 결과이며, 침수에 따른 간접 피해까지 더하면 내년 미 기업들의 조업일수 손실 규모는 310만일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SG] "美기업들, 기후변화로 내년 16조원 손해 볼 것" (조선비즈 12월 16일 보도)

대륙아주 ESG 동향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2021년 12월 9일(목)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한국의 건설산업과 탄소규제 및 호주의 신재생 개발산업에 대한 이해'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건설산업과 탄소규제'를 주제로 한 이상봉 변호사(ESG 자문부문 부문장)의 발표로 탄소규제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고, 박미현 외국변호사가 '호주 신재생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주제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신재생 개발사업에 대한 법률, 시장 및 기술적 측면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노현철 변호사가 '한국의 수소 산업 관련 법령, 제도 및 동향'등을 설명했습니다.

해외건설협회,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해외건설법률플라자 진행(화이트페이퍼 12월 10일자 보도)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ESG, 건설/부동산, 기업자문
E sblee@draju.com
T 02-3016-5276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ESG, 기업자문, 금융
E shki@draju.com
T 02-3016-8702



노현철 파트너변호사
ESG, 국제, 기업자문
E hcnoh@draju.com
T 02-3016-8730